

후설 현상학에서 재기억의 명중 문제에 관하여*

이종우

(서울대 철학과)

1. 서론

후설 현상학에서 ‘재기억(Wiedererinnerung)’은 과거에 경험한 어떤 것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는 활동이다. 우리는 재기억을 매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상생활부터 학문적 수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기본적인 의식의 기능이다. 그리고 현상학에서 재기억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관해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재생(reproduzieren)한다는 의미에서 직관적인 작용이다. 물론 이때 재기억은 과거에 지각한 것을 되풀이하는 활동이므로, 재기억의 인식적 권리는 최종적으로 지각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때 재기억이 과거에 지각했던 것을 얼마나 그대로 되풀이할 수 있는지 그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학문적 수행에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다. 만약 재기억이 지각했던 것을 항상 그대로 되풀이하지 못한다는 원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재기억이 수반되는 학문적 활동 역시 상응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특히 현상학적 학문 수행에 차질을 준다. 주체의 내적 경험을 그대로 기술하고 이론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학에서는, 생생한 기억을 유지하고 되풀이면서 내적 경험들에 주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재기억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망각 혹은 착각이라고 표현되는 현상으로서,

* 이 논문은 동일한 제목의 필자의 학사논문(2013)을 수정한 것이다.

과거에 지각했던 것을 온전히 재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빠뜨리거나 잘못된 내용을 재생하는 현상이다. 이처럼 재기억은 완벽하게 수행되지 못하므로 다양한 정도의 인식적 정당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생생한 기억과 흐릿한 기억, 특정한 부분이 잘못되거나 모호한 기억, 총체적으로 잘못되거나 모호한 기억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각을 신뢰하는 만큼 재기억을 신뢰할 수는 없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렇게 재기억의 명증(Evidenz)성격이 약화되는 원인을 탐구하려 한다.¹⁾

이 논문은 재기억이 실행되는 원리를 되짚어 나가면서 재기억이 어떻게 명증을 획득하며 명증성의 변화를 겪는지 현상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 논문이 기초하는 기본 개념 및 용어는 대부분 후설의 『내적 시간의식에 대한 강의』와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I』에서 유래하였다.³⁾ 두 저작물은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의 주요 성과를 담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시간의식과 명증에 관한 후설의 이론을 주로 참고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 재기억의 명증에 대해 알아본 후, 재기억되는 대상이 필연적으로 겪는 파지(Retention)적 변양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지각된 것을 재구성한다는 재기억 활동의 특성이 재기억의 명증성을 약화시킴을 알아보고, 4절에서는 이 재구성하는 활동을 선후관계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이 단계는 각각 재기억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활동에 속한다. 이어서 5, 6, 7절에서는 각

1) 이 논문에서 ‘명증’, ‘명증성(격)’은 후설 현상학의 지향-충족 구조 안에서 의미 지향된 것을 충족하는 직관작용 및 이 작용이 갖는 인식적 정당성을 의미한다. 특히 이 정당성의 “정도”를 염두에 둘 때에는 ‘명증성’이라고 표현한다. 후설의 명증 이론은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정적 현상학의 명증 개념은 명시적으로 미리 주어진 의미지향을 충족하는 직관인 반면, 발생적 현상학의 명증 개념은 수동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의미 지향을 충족하는 직관까지 확장된다. 박지영, 『후설의 명증이론에 있어서 정적 분석과 발생적 분석』, 『철학사상』 35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pp. 186-190 참고.

2) 이 주제를 ‘재기억의 명증 문제’로 약칭한다.

3) 두 저작은 각각 『시간강의』와 『이념들 I』로 약칭한다.

단계에서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작용들에 의해 재기억이 어떻게 명증을 획득하며 명증성의 변화를 겪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해 볼 것이다.

2. 지각 및 파지의 원본성과 재기억의 파생성

재기억이 갖는 명증성격은 후설의 『이념들 I』에서 전개된 원본적인 명증과 파생적인 명증이라는 구분에 따라 이해된다. 원본성은 지각의 명증이 갖는 성격이다. 지각된 것은 내가 추론하거나 상상해 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⁴⁾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이차적 가공 및 변형을 겪지 않은 것으로서 원본적이다. 반대로 파생성은 재기억과 같은 재산출 작용의 명증이 갖는 성격이다. 재기억된 것, 상상된 것 등은 나에게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나 필요에 의한 가공을 거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지각된 것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적이다. 그리고 후설에 의하면 모든 파생적인 명증은 원본적인 명증으로부터 정당성을 얻는다.

우리는 물론 오로지 원본적인 명증성만이 “근원적인” 정당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를 들어 재기억의 이성적 정립, 따라서 모든 재산출적인 작용의 이성적 정립과 거기에 속한 감정 이입의 이성적 정립이란 근원적이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파생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⁵⁾

4) 물론 나는 대상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 이때 이러저러한 지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반대로 재기억의 경우는 재생되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졌던 지각과 다를 가능성이 상존한다.

5) E. 후설, 최경호 역,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I』,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p. 494

따라서 재기억의 파생성 역시 지각의 원본성에 권리 원천을 두고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자. 나는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에 근거해 이러저러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풍경의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으므로 지금은 저녁 무렵이라고 판단한다. 이때 나의 판단은 지각을 근거로 갖는다. 한편 나는 풍경의 기억을 가지고도 이러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날 내가 어제 본 풍경을 떠올린다고 해 보자. 나는 기억된 풍경의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으므로 저녁 무렵이었다고 판단한다. 이때 나는 재기억을 근거로 갖는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올바르려면 내 기억 속 하늘에 노을이 진 것 같이 실제로 내 지각 속 하늘에도 노을이 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재기억된 것이 지각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기억의 명증은 지각된 것과 일치하는 만큼 인식적 정당성을 얻는다. 이제 우리는 지각된 것과의 일치를 통해 획득되는 이 정당성을 ‘재기억의 명증성’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⁶⁾ 재기억된 것과 지각된 것은 서로 적게 일치할 수도 있고 많이 일치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일치했을 때 최고의 타당성을 얻는다.

그런데 내가 재기억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지각된 것은 이미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재기억은 “지각되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어 기억 안에 있는 것”에 관련된다. 그런데 후설 현상학에서 “기억 안에 있는 것”은 “파지된 것”을 의미한다.⁷⁾ 『시간

6) ‘재기억의 명증성’이라는 표현은 명증으로서 재기억의 성격, 재기억의 명증이 갖는 특성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 재기억의 명증성은 ‘지각된 것과의 다소간의 일치를 통해 재기억의 명증이 획득하는 인식적 정당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7) 후설 현상학에서 파지는 주로 근원인상(Urimpression), 예지(Protention)과 함께 지각을 구성하는 의식의 시간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설은 지각을 구성하는 ‘가까운 파지(Nahretention)’에 대하여 ‘먼 파지(Fernretention)’를 구분한다. 먼 파지는 대상이 시간적으로 멀어지면서 더 이상 의식되지 않고 망각 속으로 침전되는 시간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살아있지 않은(unlebendig)’ 대상은 이후 재기억에 의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재기억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파지는 주로 이 먼 파지를 의미한다. 김태희,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론의 두 차원: 정적 현상학적 분석과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

강의』에서 후설은 1차적 기억인 파지와 2차적 기억인 재기억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파지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각된 것에 과거라는 성격을 부여하면서 이것을 기억 안에서 유지하는 작용인 반면, 재기억은 기억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다시 불러내어 직관하는 작용이다. 다시 말해 파지가 단순히 “기억 안에 있음”이라면 재기억은 이것을 “능동적으로 다시 환기함”이다. 따라서 재기억된 것과 지각된 것이 일치할 수 있으려면 우선 지각된 것이 파지적 변양을 겪을 때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파지된 것은 지각된 당시와 계속 일치한 채 남아 있을까? 파지적 변양이 기억대상 및 재기억의 명증성에 원리적인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까? 후설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모든 근원적 시간장이 그것을 구성하는 작용성격들과 관련하여 포함하는 연속적 변양에 대해, ... 대상적 지향에 있어서 지속적 변양이 일어나는 것인 양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대상적 지향은 절대적으로 같고 동일한 것으로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 층위하강(Sich-abstufen)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약해지고, 현재의 최고의 감각도에서 시작하여 주목되지 않는 데까지 모종의 가라앉음이 일어나는 파악 내용들의 측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⁸⁾

후설에 따르면 파지적 변양은 대상적 지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상적 지향은 대상의 시간외적 규정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상의 각종 의미내용에 관계할 뿐 시간적 규정에는 관계하지 않는다.⁹⁾ 다시 말해 파지적 변양은 대상의 시간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과거로 변화시킬 뿐 대상의 내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파지된 것 역시 지각된 것의 내용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원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 2011, p. 82, 104 참고.

8) E. 후설, 김태희 역, 『내적 시간의식에 대한 강의』(2012년 서울대학교 강의자료), 30절

9) 앞의 책, 30절

그러나 한편으로 파지적 변양은 대상을 계속해서 점차 “약하게” 만 들고 더 이상 주목되지 않는 데까지 밀어내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된 것이 처음에는 생생하게 기억되다가 나중에는 점차 희미 해지고 마침내 기억 안에서 상실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재 기억의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기억의 명증에 영향을 미친 다. 그러나 이것은 재기억 활동 “안에서의” 명증에 관해 탐구하는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재기억에 관해 언급하는 파지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상태의 파지에 국한한다. 일상적으로 나는 이러한 파지를 재생함으로써 필요한 만큼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방금 경험했거나 뚜렷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종종 특정한 부분을 빠뜨리거나 잘못된 부분을 재생한다. 그 런데 내가 능동적이고 부가적인 추론에 의하지 않고도 대상을 잘못 재 기억했음을 깨닫고 다시 제대로 재기억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가 재기억 활동에서 오류를 범했을 뿐 이 대상 자체를 여전히 암묵 적으로 파지하고 있음을 증거한다.¹⁰⁾ 이 경우 재기억의 오류는 파지적 변양이 아니라 재기억 활동 자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재기억이 파지된 것을 어떻게 재생하는지, 재기억의 어떤 작용이 오류를 유발하며 따라서 재기억의 명증성을 약화시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재기억의 재구성과 명증성의 약화

재기억이 원본적인 것을 어떻게 재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 저 재기억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야 한다. 재기억 활동은 다음의 근 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재기억은 지각된 것과 재기억된

10) 이때 파지 자체가 훼손되거나 상실되었다면 재기억의 잘못되었음은 도대체 나에게 곧바로 알려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것의 일치를 목표로한다. 재기억된 것은 언제나 지각했던 것 자체여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내용적으로도 그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두 번째로 재기억된 것은 마치 현실인 양 주어진다. 재기억은 과거의 대상 및 감각내용들을 재생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직관하지만 이때 대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기억된 호랑이와 진짜로 내 앞에 있는 호랑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재기억된 나의 따가운 감각은 진짜 따가운 감각이 결코 아니다. 이처럼 재기억 안에서는 마치 현실적인 양 대상 및 감각내용들이 주어지지만 그것들은 현전(Gegenwart)이 아니라 현전화(Vergegenwärtigung)이다.

세 번째로, 지각된 것이 지각대상 자체와 이것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구성(Konstitution)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기억된 것 역시 내적 재생과 외적 재생을 통해 구성된다. 외적 재생은 현출(erscheinen)하는 기억대상 자체이며, 내적 재생은 기억대상이 그러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특정한 현출방식들, 주어짐의 방식들을 의미한다. 후설은 재기억의 내적 재생과 외적 재생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기억의 본질에는 일차적으로는 기억이 지각·되었음의 의식이라는 사실이 속한다. 나는 외적인 사건을 직관적으로 기억할 때 그 사건에 대한 재생적 직관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정립하는 재생이다. 그러나 이 외적 재생은 필연적으로 내적 재생을 통해 의식된다. 외적인 현출함은 외적 사건이 특정한 현출방식 안에서 주어짐에 의해 재생되어야 한다. 체험으로서의 외적인 현출함은 내적 의식의 통일체이고, 내적 의식에는 내적 재생이 상응한다.¹¹⁾

이때 지각된 것과 재기억된 것의 차이는, 지각된 것이 근원인상을 소재로 하는 현실적인 의식인 반면, 재기억된 것은 파지를 소재로 하는 유사 현실이라는 점뿐이다. 그러나 재기억의 구성은 내가 대상을 지각했을 때와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재기억은 지각된 동일

11) E. 후설, 김태희 역, 『내적 시간의식에 대한 강의』(2012년 서울대학교 강의자료), 27절

한 대상(외적 재생)을 직관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규정(내적 재생)을 통하여 직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기억은 원본적인 것을 구성하는 규정들을 파지 상태에서부터 현재로 단순히 “꺼내오는” 활동이 아니다.

특히 재기억의 착각은 재기억이 지각된 것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성하는” 활동임을 보여준다. 착각은 기억을 빠뜨리거나 잊어버림과는 다른 현상이다. 기억을 빠뜨리거나 잊어버림이 “해당하는 기억에 닿지 않음” 혹은 “기억의 소멸”을 의미한다면 재기억의 착각은 “엉뚱하게 재생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해당하는 원본적인 것을 언제나 정확히 지향한다고 해도 나는 이를테면 외부적·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을 남김없이 재생하는 일에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엉뚱하게 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착각은 실제 지각된 것과 다른 것을 되풀이한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갔던 결혼식을 떠올려보자. 신랑·신부의 모습, 떠들썩한 하객들의 모습 등 나는 특징적인 몇몇 장면만을 떠올릴 수 있을 뿐 몇 시간 동안 경험한 일 모두를 떠올리지는 못한다. 이때 나는 특별히 인상 깊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축가가 무엇이었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 등에서 종종 착각을 범한다. 이것은 보통 기억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현재 관심에 따른 기억내용의 연상이나 추론 따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와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이 친구와 함께 결혼식에 갔었다고 기억되거나, 저 친구와 이야기할 때에는 저 친구와 함께 갔었다고 기억되거나 한다.

정리하면, 재기억은 지각된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것과의 일치를 목표하면서 유사한 파생적인 것을 구성하는 현전화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관심이나 추론 등이 끼어들기 때문에) 재기억된 것과 지각된 것의 불일치 및 명증성의 약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재기억의 재구성 활동은 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단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재구성 활동의 단계들을 따라가면서 재기억의 명증이 어떻게 획득되며 명증성에 어떤 한계가 주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 재기억의 단계들

모든 재기억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갖는다.¹²⁾

- ① 기억대상에 관한 최초의 지시가 주어지는, 그러나 그것의 규정들이 아직 모호한, 재기억 활동의 시작 단계
- ② 기억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주어지는, 그러나 아직 직관되지 않는 단계
- ③ 기억대상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재생(직관)되는 단계
- ④ 재기억 활동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충분한 수행 후 종료되는 단계

단계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재기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막 하고 있던 활동을 멈추고 좋아하는 노래의 재기억이라는 새로운 활동으로 접어드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노래를 기억할 것이라는 의식만이 있을 뿐, 아직 노래를 기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실행되지 않으나, 곧 실행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노래에 관한 의식은 모호하고 비직관적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정한 재기억이 시작된다. 이제 나는 기억할 노래에 대한 구체적인(그러나 여전히 비직관적인) 의식을 가진다. 다시 말해 나는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겨냥하고 그것의 인상과 느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어렴풋이 갖는다.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재생해야 할지 알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로소 실질적인 노래가 머릿속에서 재생되면서 앞 단계의 규정이 더 자세하게 발전한다. 이 단계는 외적 재생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재기억 활동의 핵심이다. 마지막 단계에

12) 혹시 모를 예외를 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지각 및 재기억의 대상은 감각내용을 갖는 대상에 한정한다. 즉 사변적인 경험이나 순수하게 감성적인 경험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기억내용과 그것에 대해 미리 주어지는 지시 및 규정을 구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재기억은 의도적인 활동에 한정한다. 따라서 모종의 경험으로 인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기억이 떠올러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는 노래의 완료나 나의 관심 변화 등의 이유로 재기억 활동이 종료된다. 우리는 어떤 재기억 활동에도 이 네 가지 단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첫째 단계와 넷째 단계는 재기억 자체에 포함된다기보다는 재기억을 시작하고 끝내는 활동이 두드러지는 단계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에 관련된 자아, 즉 재기억의 고유한 구조에 “종속”되지 않고 재기억의 시작과 종료, 촉진과 억제를 주관하는 자아를 재기억의 ‘외적 자아’라고 명명한다. 이와 반대로 본래적인 재기억을 실행하는 단계는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이다. 이러한 활동들에 관련된 자아로서 재기억 활동의 고유한 구조 안에서 “종속된” 자아를 이 논문에서는 재기억의 ‘내적 자아’라고 명명한다.

재기억을 시작하고 끝내는 활동에 관련된 첫째 단계와 넷째 단계는 각각 기억대상의 모호한 공지향(Leereintention)이 주어지고 사라지면서, 재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일깨우고 중지시키는 단계이다. 재기억의 공지향은 기억대상에 관한 지시 및 비직관적인 규정을 말한다. 반면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는 재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실행됨으로써, 각각 공지향의 규정이 처음으로 구체화되고, 이것을 충족(Erfüllung)하는 직관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단계이다.¹³⁾ 둘째 단계에서 나는 앞 단계에서 주어진 대상에 관한 지시와 함께,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적인 규정들로 심화시킨다. 셋째 단계에서 비로소 나는 앞 단계에서 주어진 지시 및 규정들을 계기로 실질적인 감각내용들을 재생함으로써 공지향을 충족한다. 이렇게 재기억의 재구성 단계들은 외적 자아에 의한 공지향과 내적 자아의 촉발(첫째 · 넷째 단계), 그리고 내적 자아 안에서 공지향의 구체화 및 직관적 충족(둘째 · 셋째 단계)으로 구분될 수 있다.

13) 후설 현상학에서 지향적 체험은 대상에 관한 공허한 지향으로부터 직관에 의한 충족으로 향하는 목적론적 경향을 지닌다. 이때 공허한 지향은 아직 대상이 직관되지 않은 사념으로서 이때 대상은 그것이 사념된 그대로인지 아닌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인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직관에 의해 대상이 사념된 대로 주어지면 공허한 지향은 충족되면서 명증을 획득하게 된다. 기다 겐 외, 이신철 역, 『현상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b, 2011, p. 29 참고.

일상에서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구분은 수동성과 능동성의 차이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피아노”를 재기억한다고 마음먹고서 엉뚱하게 “번데기”를 떠올릴 수 없다. 피아노 혹은 번데기에 관해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이것의 심상을 떠올리려고 결심하는 것은 외적 자아의 활동이다. 이렇게 나는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멈추려는 결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일단 피아노를 기억한다고 결심하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떠올리게 되지 다른 전혀 엉뚱한 것을 떠올리지 못한다. 이때 피아노의 심상을 실제로 떠올리는 것은 내적 자아의 활동이다. 이처럼 내적 자아는 자의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며 목표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생한다는 재기억의 고유한 구조에 얽매어 있다.

따라서 재기억의 명증 문제와 관련하여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구분이 갖는 의미는, 외적 자아는 애당초 기억해내고 있던 것과 다른 엉뚱한 것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재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적 자아가 지정한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내적 자아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재기억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계 구분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다. 우리는 이제 재기억의 외적 자아 및 내적 자아가 어떤 특징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며 그들이 재기억의 명증 문제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5. 외적 자아의 관심과 재기억의 명증 문제

재기억을 시작하고 끝맺는 외적 자아의 활동은 그 자체로 진정한 재기억 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외적 자아는 재기억 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의 결혼식의 예에서 나는 당시에 인상 깊게 경험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관심에 부합하거나 깊은 인상을 받은 경험은 아무리 시간적으로 먼 과거에 벌어

진 일이라도 방금 전에 겪은 일상적인 일보다 훨씬 명료하게 기억됨을 알 수 있다. 재기억에 대한 외적 자아의 이러한 영향력을 이 논문에서는 ‘관심’이라는 말로 통틀어 표현한다.

관심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재기억에 관여한다. 한편으로 관심은 재기억 활동을 촉진 및 억제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억 대상 및 내용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먼저 외적 자아는 재기억 활동을 시작하거나 끝내고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재기억 활동은 나의 특정한 관심에 의해서 시작되며, 재생된 것이 나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흥미를 유발하면서 더욱 촉진된다. 반대로 재생된 것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재기억 활동은 점차 부진해지거나 흐지부지되고, 더 이상 관심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

관심은 재생되는 재기억의 대상 및 내용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심은 기억대상에 대한 지시와 규정들(공지향)을 선별함으로써, 그에 따라 향후에 재생될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선별한다. 이것을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종의 이유로 인한 외적 자아의 관심 변화가 재기억 활동을 시작하면 동시에 기억대상에 관해 주어지는 최초의 공지향은 나의 현재 관심에 따라서 결정된다. 물론 재기억 당시에 내가 갖는 관심은 그때까지 나름의 역사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 나는 기억대상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보다는 약하기 마련이지만 기억대상에 대한 간접적 경험들에 의하여 다른 부분에 새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아무튼 기억대상에 관한 공지향이 관심에 의해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계에서) 선별적으로 주어지고 나면 이에 따라 (세 번째 단계에서) 재생되는 내용들 또한 선별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재기억은 나의 관심이 얼마나 폭넓거나 파편화되어 있는지 혹은 자기중심적인지 대상중심적인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수행된다. 어떤 경우에는 기억대상 중 나의 관심에 부합하는 일부만 재생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실제 기억대상에 이질적인 것이 나의 주관적 관심 및 그릇된 판단에 의해 함께 재생되기도 한다.

이제 관심이 재기억의 명증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방금 처음 들은 노래’를 재기억한다고 해 보자. 나는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불러보고 싶다는 정서적인 이유로 재기억을 시작한다(관심에 따른 공지향의 주어짐). 재기억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노래를 나름의 방식으로 겨냥하며,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들과 함께 노래가 전개되어야 할 특정한 규정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나는 내 감성에 부합하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위주로, 한 마디로 내가 느끼는 대로 노래를 파악한다(관심에 따른 공지향의 구체화). 이제 나는 실제로 노래를 재생하면서 더욱 구체화된 규정들 이를테면 노래의 특정 부분의 음정, 박자, 기교 등을 가진다. 그러나 내 감성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인상 깊지 않았던 부분들은 되풀이하지 못한다. 이것은 앞에서 공지향이 인상 깊었던 부분을 위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나는 원래 곡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곡을 비틀어 재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나는 실제 기억 대상이 아니라 자의적 상상이나 왜곡 혹은 착각에 의한 공지향을 갖고 이것을 충족한다(관심에 따른 선별적 재생). 이렇게 노래가 재생되면서 나는 감성적인 만족을 얻게 되며 이것이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노래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억제한다(관심에 따른 재기억의 촉진·억제). 끝으로 노래를 충분히 마쳤다고 판단하거나 노래에 더 이상 흥미가 없을 때 나의 관심이 다른 데로 전환되면서 재기억이 종료된다.

이렇게 외적 자아의 관심은 재기억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재기억의 명증 획득과 명증성의 약화에 관여한다. 이러한 영향은 재기억의 동기부여(시작·종료 및 촉진·억제)와 기억의 선별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아가 재기억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관심은 재기억의 명증이 획득되기 위한 발생적 조건이다. 이때 재기억에 대한 관심의 저하는 재기억의 명증 획득을 방해하는 요소이지만, 이것은 상당 부분 나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재기억 활동에 몰입하면 방해 요소는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심에 의한 기억의 선별은 재기억의 명증성에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요소이다. 관심에 따라 주어지는 공지향 및 향후 재생되는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대상 전체가 인

상 깊게 주어지거나 나의 현재 관심이 되지 않는 이상 재기억은 불완전하게 수행되며, 때로는 나의 관심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수행된다.

6.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과 재기억의 명증 문제

이제 재기억의 내적 자아 안에서는 어떠한 활동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내적 자아 안에서 나는 목표된 기억대상 자체에 집중한다. 내가 피아노를 기억한다고 마음먹으면 피아노가 실제로 떠오르듯이, 내적 자아 안에서 재기억 활동은 관심에 의해 목표된 것을 구체적으로 재생하고 직관한다. 이 절과 다음 절에서는 내적 자아의 이러한 활동이 재기억의 명증 문제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본다.

외적 자아가 관심을 통해 기억대상을 선별하고 접근함으로써 재기억의 명증이 획득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기억의 명증성에 제한을 가한다면, 내적 자아는 목표된 기억대상을 “단지 충실히” 구현함으로써 재기억의 높은 명증성을 추구한다. 처음에 기억대상은 순전한 지시 및 모호한 규정으로만 주어진다. 그러나 내적 자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억대상의 의미연관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들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 규정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재생되기 시작하면 내적 자아는 기존에 재생된 내용들과 새로 재생된 내용들의 복합적인 의미연관에 따라 다시 더욱 구체적이거나 새로 이어지는 규정들을 지향하는 식으로 반복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억대상의 공지향을 갖고 이것을 대상의 의미연관에 따라 더욱 구체화하는 내적 자아의 작용을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Bedeutungsintention)’이라고 지칭한다.¹⁴⁾ 그러나 최초

14) 후설 현상학에서 의미지향작용은 파악작용만이 존재하고 감각내용은 결여된 채 대상과 공허하게 지향적 관계를 맺는 지향적 체험을 일컫는다(박지영, 『후설의 명증이론에 있어서 정적 분석과 발생적 분석』, 『철학사상』 35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p. 188). 그러므로 외적 자아에 의해 최초로 공지향이 주어지는 작용 역시 (본래적인 의미의) 의미지향작용이다. 이 논문에서

의 공지향은 먼저 관심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지향작용 역시 외적 자아의 영향을 받는다.

내적 자아 안에서 의미지향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보자. 내가 노래를 재기억할 때 최초로 주어지는 공지향은 노래를 향한 공허한 겨냥이며 이와 함께 노래의 모호한 인상 및 느낌이 주어진다. 이제 노래를 있는 그대로 재생하려는 내적 자아의 활동 안에서 최초의 모호한 인상 및 느낌은 노래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조망 및 노래의 시작부에 대한 주목을 향해 점차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것은 곧 시작부의 음, 가사, 목소리, 창법 등 노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전망을 향해 더욱 구체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제 한층 자세해진 지향이 노래의 실제 재생으로 전환되면 의미지향작용은 한층 복잡해진다. 내적 자아는 노래의 재생 이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지향들과 방금 재생된 내용의 감성에 따라 새로 일깨워진 지향들을 함께 종합하는 방식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공지향을 갖는다. 이러한 활동은 해당하는 부분들이 재생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며 노래 전체가 재생될 때까지 계속된다.

노래처럼 시간적으로 연장되거나 복잡하지 않은 대상의 경우에도 언제나 의미지향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거북이’를 떠올릴 때 나는 비록 찰나의 순간이지만 최초로 주어지는 거북이의 단순한 언어적 지시를 넘어 개념적 규정들을 반드시 거친 후에 거북이의 시각적인 심상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최초의 공지향이 구체화되는 작용은 명시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암묵적이고, 특히 의도적이지 않은 재기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¹⁵⁾ 그러나 재기억 중에 내가 조금이라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은, 저 “외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과 구별하여, 외적 자아에 의해 처음 주어진 공지향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는” 작용을 표현한다. 의미지향작용에 의해 최초의 단적인 공지향은 기억대상의 의미연관에 따라 점차 복잡해진다. 혹은 최초의 공지향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내용들을 가진 새로운 공지향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

15) 이 부분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결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솔뚜껑을 보고 거북이의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 거북이에 대한 공지향이 “명시적으로” 주어지거나 구체화됨 없이 곧바로 재생이 일어난다. 그러나 거북이에 대한 구

도 더 복잡한 기억대상을 염두에 두는 순간 공지향이 구체화되는 활동은 명시적으로 된다. 예를 들어 나의 재기억이 거북이의 단적인 심상을 넘어 거북이의 활동하는 모습, 도구적 유용성, 동물학적 사실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런데 재기억의 내적 자아는 이러한 의미지향작용을 통해 기억대상을 구체적으로 재생할 뿐 아니라 이미 재생된 기억내용을 “원초적인 수준에서” 평가하기도 한다. 즉 이 평가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다. 기억내용이 구체적으로 재생되기 시작하면 재기억된 것과 지각된 것 사이의 균열 및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 재기억된 것과 지각된 것의 일치가 보증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재기억된 것이 “부족하다는”, “일치한다는”, “이상하다는” 등의 느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느낌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의미지향작용을 통해 기억대상의 고유한 특징, 감각내용, 정서적인 성격, 도구적 유용성 등 기억대상의 복잡 다양한 본질연관에 기초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갖기 때문이다. 이 규정들은 나에게 주목되지 않아도 이미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된 노래가 짧다는 느낌은 이 노래의 길이가 이미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굿거리 장단의 노래를 자진모리 장단으로 잘못 재생했을 때 드는 어색한 느낌 역시 그 곡의 분위기가 미리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어느 한 규정에 어긋나는 재생된 내용들은 한편으로는 이미 다른 어떤 규정을 충족함으로써 재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기억의 어긋남은 기억대상에 관한 상충하는 규정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¹⁶⁾ 한편 이러한 “어긋남”과 달리 재기억의 “결핍”은 특정한 규정을 단순히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재기억의 공지향은 순전히 기억대상에 충실하게 주어지

체적인 의미지향(거북이에 대한 지향성)이 이미 “암묵적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 촉발(술뚜경의 지각)이 거북이 심상의 재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16) 앞에서(4절) 내적 자아는 기억의 어긋남의 원인이 아님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상충하는 규정들은 기억대상에 관한 외적 자아의 상이한 관심에 기인한 것이며, 내적 자아는 이 규정들의 어긋남을 직감하고 평가할 뿐이다.

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 나의 관심에 부합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예컨대 노래를 재생하는 경우 나는 이것을 내 감성에 부합하게 약간 비틀어 가질 수 있다. 이때 실제 노래에 부합하는 규정과 나의 감성에 부합하는 규정은 상충하게 되며 나는 노래를 어긋나게 재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실제 노래의 규정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의식되기 때문에 노래를 어긋나게 재생했다는 느낌 또한 함께 주어지게 된다. 한편 내가 가수의 노래만 재생하고 반주를 빠뜨리는 경우에는 반주에 관한 특정한 규정이 충족되지 못하며, 내가 이 규정을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나에게 결핍의 느낌이 함께 주어진다.

이처럼 내적 자아는 나에게 잠재된 기억대상의 의미연관을 따라 기억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향하고 이에 따라 재생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기억의 더 높은 명증성을 추구한다.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이 구체적으로 수행될수록 재생되는 기억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주어지며, 나아가 재기억의 명증성의 구체적인 정도가 “원초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내적 자아가 얻을 수 있는 명증성은 어디까지나 외적 자아의 관심에 의해 미리 제한되어 있다. 나는 오직 관심에 의해 주어진 공지향에 기초해서만 기억대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한 부분을 도외시하거나 왜곡된 공지향만을 갖는 경우에는 실제 지각된 것과 재생된 것의 불일치를 직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 다녀온 후에 나는 주로 인상 깊게 관람했던 그림들만을 재기억할 수 있다. 이때 나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림들의 경우는 아예 재기억의 대상으로 삼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 타당성도 평가할 수 없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다시 예를 통해 살펴보자. 제일 먼저 관심에 의해 노래의 공지향이 주어지면서 재기억의 내적 자아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내적 자아는 최초의 공지향에 기초하여 점차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향한다(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 이에 따라 공허했던 기억대상은 “흥겨운 느낌의”, “시작부의 구성이 이리저리한” 등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갖게 된다. 이제 노래가 실제로 재생되면 규정들과 재생된 내용들의 일치 여부에 따라 원초적인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진

다(의미지향작용에 기초한 평가). 이때 상충하거나 충족되지 못한 규정들이 의식됨으로써 재생된 노래의 명증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 그것은 엇나감의 유형으로 나타나서 실제 노래에 대해 재생된 음의 위치가 다르거나, 느낌이 다르거나, 조화롭지 못함을 (원초적인 수준으로) 지적한다. 다른 경우에 그것은 결핍의 유형으로 나타나서 노래의 특정 부분이 재생되지 않았거나, 함께 반주되는 악기 소리가 재생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이 재기억의 명증 문제에 대해 중요한 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억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의미지향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되고, 두 번째는 재생된 기억대상을 구체적인 의미지향에 비추어 원초적인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능력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능력의 조건인) 첫 번째 능력은 기억대상이 갖는 다양한 의미지평(Horizont)에 관한 문제, 이 지평이 자아에게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연관된다.

7. 내적 자아의 충족적 직관과 재기억의 명증 문제

재기억의 재구성 활동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요소는 충족적 직관이다. 이 논문에서 내적 자아의 충족적 직관은 지향된 기억대상을 유사 현실로 가져오는 재기억의 작용을 지칭한다.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이 이를테면 피아노에 대한 지식과 이것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갖는다면, 충족적 직관은 이렇게 지향된 피아노의 심상을 실제로 재생하면서 파지 상태로부터 현재화한다. 그러나 이 직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오직 공지향에 의해 미리 겨냥된 기억내용을 충족함으로써만 활동한다.

의미지향작용과 대립하여 이러한 직관 작용을 부각하는 이유는 이 작용이 관심 및 의미지향작용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관심 및 의미지향작용은 선별과 파악을 통해 특정한 기억대상을 규정

하고 지향한다. 반면 충족적 직관은 이렇게 지향된 기억대상을 단순히 가져온다. 따라서 전자가 기억대상의 의미내용에 관계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기억대상의 충족양상(명확함과 어두움)에만 관계한다.

재생작용이 충족양상에만 관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파지의 형태로 우리의 의식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들은 잠재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았던 피아노의 모습은 그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는 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기억 속에서 단지 암묵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내적 자아 안에서 충족적 직관은 이 잠재적인 파지들을 다시 내 앞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이때 다시 나타난 의식들은 더 이상 잠재적이지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되며, 현재라는 시간적 양상 안에서 “생생하게”, “유사-현실적으로” 주어진다.¹⁷⁾ 그러나 이 변양이 해당하는 기억대상의 의미내용을 변화시킨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직관하는 작용은 과거(파지)에 대한 단순한 주목과 다름없다. 과거의 무엇을 주목할지 결정하는 작용이 관심과 의미지향작용이라면 그에 따라 실제로 행해지는 단적인 주목이 재기억의 충족적 직관이다.

충족적 직관은 재기억의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재기억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재기억의 명증은 언제나 충족적 직관에 의해 직접 획득되므로 충족적 직관은 재기억이 명증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직관 작용은 기억대상의 충족양상에만 관계하므로 결코 독자적으로 특정한 기억대상을 주목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향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심 및 의미지향작용과 달리 충족적 직관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재기억의 명증성에 영향을 주지 않

17)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적 양상은 기억대상의 “실제” 시간적 양상과는 관련이 없다. 즉 기억대상은 지금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현재이지, 그것이 지금 “최초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현재인 것은 결코 아니다. 후설에 의하면 기억대상은 자아 안에서 규정된 고유한 시간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타났음과 관계없이 실제로 과거의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강의』 25절 참고

는다.¹⁸⁾ 그 대신 재기억의 명증성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이 어떻게 충족적 직관을 동기짓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무언가에 대한 겨냥이 어떻게 그것의 실제 현전화(Repräsentation) 및 직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기억의 명증성의 손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 왜 의미지향한 대로 재생하지 못하는지 - 그 발생적 연관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발생적 현상학 그리고 2장에서 언급한 파지의 명증 문제와 긴밀하게 닿아 있다.

8. 결론

이 논문은 재기억의 명증 획득 및 명증성의 약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가라는 주제로 재기억 활동의 고유한 단계와 작용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기억은 지각된 것과 재기억된 것의 일치를 통해 인식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파생적 명증을 갖는다. 그러나 재기억이 재생하는 대상은 언제나 파지된 것인데, 심하게 변양되지 않는 한 파지된 것은 지각된 것과 내용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재기억의 명증성이 약화되는 원인을 재기억 활동 자체에 한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재기억 활동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살펴봐야 한다. 재기억은 지각된 것과 재기억된 것을 동일시하면서 이루어진다는 특성, 재기억된 것이 유사 현실로 주어진다는 특성, (지각과 마찬가지로) 외적 재생과 내적 재생을 통해 구성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기억의 착각은 재기억이 지각된 것의 구성 과정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이

18) 물론 충족적 직관은 관심에 의해 잘못 주어진 공지향을 충족하면서 잘못된 기억내용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재기억의 명증성에 관여하지만, 이 경우 직관하는 작용 자체가 기억대상에 있어서 오류를 생성한 것은 아니다. 반면 관심과 의미지향작용은 잘못된 공지향을 부여하고 구체화하므로 각각 재기억의 오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아니라 지각된 것과 유사하게 다시 구성하는 활동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구성에는 고유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재기억의 명증 문제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재기억의 재구성 활동은 ① 기억대상에 관한 최초의 지시 및 규정들이 주어지는 단계, ② 기억대상에 관한 최초의 지시와 규정들이 구체화되는 단계, ③ 기억대상의 실질적 내용들이 재생되는 단계, ④ 재기억이 종료되는 단계로 구분된다. 이때 재기억 활동의 고유한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기억의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를 구분할 수 있다. 단계들 중 첫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외적 자아의 활동에 속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내적 자아의 활동에 속한다. 외적 자아는 재기억을 시작하거나 끝내고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내적 자아는 재기억 활동의 구조에 종속되어 기억대상을 충실히 구현할 뿐이다.

이제 재구성 활동의 단계별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며 이들이 재기억의 명증 획득 및 명증성의 약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재기억의 외적 자아에서는 관심이 재기억을 동기부여하고 기억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재기억의 명증 문제에 관계한다. 관심은 재기억을 시작하고 이 활동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재기억을 촉진함으로써 재기억의 명증이 획득되기 위한 발생적 조건이 된다. 그러나 또한 나는 관심에 부합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기억대상의 공지향을 가지고 이에 따라 재생을 수행한다. 이때 나의 편향적인 관심에 따라 대상규정들이 공지향으로 주어지지 않거나 잘못 주어짐으로써 재기억의 명증성이 약화된다.

한편 재기억의 내적 자아는 최초의 공지향에 기초하여 더 구체적인 규정들을 지향하고 이에 따라 재생된 내용들을 평가하면서 재기억의 더 높은 명증성을 추구한다. 재생이 진행되면서 내적 자아는 기억대상의 복잡 다양한 의미연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원초적 평가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재기억의 엇나감, 결핍 등이 알려진다. 그러나 이때 내적 자아가 추구하는 명증성은 외적 자아의 관심에 의해 미리 제한되어 있

다. 한편 내적 자아는 앞에서 이러저러하게 지향된 기억내용들을 직관을 통해 충족한다. 이 충족적 직관은 겨냥된 대상을 단순히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명시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억대상의 충족양상에만 관계한다. 이 직관은 내적 자아가 추구하는 재기억의 명증성을 실제로 부여한다. 내적 자아의 경우 대상규정들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재생하려는 노력이 사실적 조건들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재기억의 명증성이 약화된다.

앞의 분석들을 통해서 필자는 재기억의 명증 문제에 관계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부각하였다. 그것은 외적 자아의 관심,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과 충족적 직관이었다. 관심은 모종의 기억대상을 제공함으로써 재기억의 명증 획득의 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지향의 선별을 통해 재기억의 명증성을 미리 제한한다. 그 안에서 내적 자아는 재기억의 높은 명증성을 목표로 기억대상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며, 이것을 직관 작용을 통해 충족함으로써 실제로 명증을 부여한다. 물론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는 마치 어느 하나가 작동할 때 다른 하나가 정지하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고 상호작용한다. 외적 자아는 내적 자아를 촉발하면서 내적 자아에 특정한 기억대상을 제공하고, 내적 자아는 다시 외적 자아에 대해 구체적인 재생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제공하여 다시 외적 자아가 내적 자아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 내적 자아 안에서 의미지향작용과 충족적 직관도 마찬가지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촉발 및 억제하면서 진행된다.

결국 재기억의 명증 문제에 대해 현상학적 분석은 다음의 물음들을 제기한다. ① 외적 자아의 관심이 어떻게 재기억을 촉진하고 억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상규정들에 관한 의미지향을 선별하는가? ② 내적 자아의 의미지향작용이 어떻게 이 대상의 의미지평 속에 잠재된 구체적인 규정들을 지향하거나 명시화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규정들에 비추어 재생된 내용들을 원초적인 수준에서 평가하는가? ③ 내적 자아의 충족적 직관은 어떻게 이 의미지향작용으로부터 동기지어지는가? 그리고 의미지향된 규정들을 어떻게 실제로 현전화하는가? ④ 이 모든 과정들에서 재기억의 명증성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각 과정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며, 명증성에 대한 각 과정들의 기능 및 제한들 역시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 논문은 후설 현상학에 기초하여 재기억의 명증 획득 및 명증성의 약화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나름대로 현상학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서술한 것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일 뿐이며 더욱 구체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우선 외적 자아의 관심이라는 개념은 주체의 본능, 습관, 역사, 가치와 의욕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내적 자아의 의미 지향작용과 충족적 직관은 후설 현상학의 모든 지향적 체험이 갖고 있는 지향-충족의 구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¹⁹⁾ 따라서 이 개념들은 지각, 상상, 추론 등 다른 의식작용들의 경우와 더불어 이해되어야 하는 동시에 재기억이라는 영역에서 갖는 고유성 역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남으로써 탐구되지 못한 부분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기억의 명증성의 한계를 엄격하게 규명하려면 파지적 변양이 재기억의 명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탐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기억의 충족적 직관의 경우, 기억대상의 내용에 관한 지향성이 어떻게 그 내용의 현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기억의 명증성이 모종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중요한 과제이다. 『시간강의』와 『이념들 I』의 범위를 벗어난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에서 이것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 재기억의 의미지향작용은 그 대상이 과거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재기억의 충족적 직관은 과거의 기억대상을 현재화한다는 점에서만 특별하다.

참고문헌

- E. 후설, 최경호 역,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I』,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_____, 김태희 역, 『내적 시간의식에 대한 강의』(2012년 서울대학교 강의자료)
- 기다 겐 외, 이신철 역, 『현상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b, 2011
-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R. 소콜로프스키, 최경호 역, 『현상학적 구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론과실천, 1992
- 김태희,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론의 두 차원: 정적 현상학적 분석과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1
- _____, 「객관적 시간 구성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철학사상』 48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 _____, 「예지와 근원현전」, 『철학사상』 36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 박지영, 「후설의 명증이론에 있어서 정적 분석과 발생적 분석」, 『철학사상』 35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 L. 베르넷, 하병학 역, 「후설의 베르나우 원고에서의 시간 의식에 대한 새로운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15권, 한국현상학회, 2000
- 김준연, 「후설의 현상학에 있어서 지각의 의미」, 『동서철학연구』 13권, 한국동서철학회, 1996
- 전영길, 「후설의 구성'의 문제」, 『역사와 사회』 9권, 국제문화학회, 1992